

2015년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아르코창작아카데미 심의평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아르코창작아카데미는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 창작을 목적으로 공연 창작에 기본 소양을 갖춘 작곡가, 작가들을 서면심사와 개별 인터뷰 심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뮤지컬·오페라 분야의 활동 경험자로 제한하지 않고, 다 장르(영화, 드라마, 전통연희 등) 창작자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6명이 지원하여 서면심사와 1차,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심사는 지원신청서,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 기량(30%), 성장 잠재력(30%), 독창성 및 참신성(20%),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20%)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뮤지컬 분야의 2기 지원자들은 연령대나 프로필이 다양했고,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뮤지컬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표명해 주었다. 표면적인 경력보다 제출한 창작품이 서류심사에 주요 평가대상이었으며, 프로필의 경력사항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1기 모집에서 아쉽게 탈락되었다가 2기 모집에 재도전한 지원자들도 적지 않았으며, 1년간 뚜렷한 발전과 성과를 보인 분들은 2기에 선정되었다.

오페라 분야의 경우, 클래식에 바탕을 둔 실력파 작곡가들과 함께 영화음악이나 현대음악 장르까지 좀 더 새로운 분야의 지원자들로 오페라 작곡을 기대할 역량 있는 작곡가들이 선정되었고, 작가들은 극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인문학적 소양을 살펴봄으로서 창작될 작품에 대한 철학적 깊이와 인간 원형에 대한 신화, 전설, 설화의 상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가들로 선정하였다.

특히 작곡가와 작가의 협업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작곡가 작가들이 서로의 개성과 조화를 대화를 통해 작품으로 잘 승화시킬 수 있을지도 2차에 걸친 인터뷰 심의를 통해 부합되는 지원자들로 신중한 논의 끝에 선정하였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 시 특별한 점은, 지원자의 성향이나 제출된 작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 장르를 변경하여 지원결정을 한 것이다. 전공 장르의 변경은 심사위원들과 지원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 본 과정이 뮤지컬·오페라 통합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향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원자들 또한 창작활동에 계속 매진하여 차후 3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지원신청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르코창작아카데미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